

## 7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4.7.25.(목) 오후 2시 30분,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손영준 위원장, 안호림, 서신석, 진한수,

안성희, 이상헌, 이성우 위원 7인(허인순, 강건기, 박화선 위원 서면 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시청자센터 부장

### ■ 주요 내용

#### ▲ 시청자평가원 선임 안건

- 시청자위원회는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프로그램(바로보는TV 옴부즈맨)에 현재 출연 중인 박세진 시청자평가원이 대학교 강의 관계로 시청자평가원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연합뉴스TV 시청자평가원 후보추천위로부터 후보자 최미연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전임연구원을 추천 받음

-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문성, 경력 등 검토와 다수의 의견으로 관련법(방송법 제88조) 및 규정(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시청자평가원 운영규정)에 따라 최미연 시청자평가원을 선임함

#### ▲ 손영준 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습니다. 7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전국적으로 홍수, 장마, 폭염 등의 재난 사고가 많았습니다. 연합뉴스TV는 특히 집중호우 예보와 피해 보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날씨 상황에 순발력 있게 보도하는 모습이 좋았고, 생생한 현장감을 보여주는 영상 화면도 계속 업데이트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공받은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 자막으로 제공 화면이라고 밝히는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영상 제공 주체가 공적 기관인지 시청자 제보인지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밝혀준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의 화면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영상 편집자 이름만 명기해 그것이 자체 촬영인지, 제공인지 구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7, 8월이면 우리나라는 각종 재난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공중파 방송 한 곳이 재난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있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재난 보도에 주관, 비주관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연합뉴스TV가 회사 역량에 맞게 '시청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 방송 매뉴얼과 시스템을 구축해 대비한다면 더욱 알찬 뉴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리포트에 제보 영상을 넣을 때에는 항상 해당 영상이 나올 때 시청자 제공이라는 자막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청자 성함까지 넣습니다. 시청자 제보자 중에서는 성함 노출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셔서 그냥 시청자 제공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보면 KBS만 재난주관방송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주관방송사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날 비가 많이 왔을 때

에도 저희가 KBS 이상으로 열심히 재난방송을 해서 그 당일 시청률도 닐슨 조사에서 지상파 포함 전체 4위로 나왔습니다. KBS1, MBC, TV조선 그 다음에 저희였는데요. 이렇듯 많은 시청자들이 연합뉴스TV를 시청해 주시기에 앞으로도 재난 주관방송사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재난 방송 매뉴얼은 자사가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대한 시스템 구축 및 재난 재해 보도에 필요한 보도준칙을 제정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 ▲ 안호림 부위원장

- <7월 1일 10:51 뉴스포커스> 민주당 측 패널 박창한 장안대 특임교수가 “배신자 프레임의 주체가 누구였다” 하면서 설명 도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언급할 때 “박근혜 씨와 유승민 전 의원이예요, 그런데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보수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박힌 돌입니다. 뿌리깊은 박힌 돌이예요. 상징성과 보수의 정통성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와 같은 그런 보수의 상징성이나 어떤 정통성 면에 있어 박근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방송 출연자로서 존칭과 직책 사용을 하면 패널에 대한 공신력이 더 높아 보일 것 같습니다.
- <7월3일 06:31 진기훈 기자 리포트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김건희 여사 영향 관심>보도에서 '돈 주인'인 한자어인 '전주(錢主)'를 전라북도 '전주(全州)'처럼 길게 발음하여 시청자에게 자칫하면 다른 내용을 보도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서 발음에 좀 더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 패널들 발언을 저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발언 때문에 저희 TV의 공정성 내지는 품위가 손상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영마다 시각은 다르겠지만 가급적이면, 특히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존칭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패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설명해서 앞으로는 가급적 저희 방침에 따라주시도록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패널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교체시 반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장단음을 구별하는 문제는 사실 일반인들은 쉽지 않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아나운서들은 구별을 잘 하겠습니까마는, 기자들도 약간 좀 일반인에 가깝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지만, 아나운서만큼 전문적인 교육을 오래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래도 방송하는 기자들은 시청자에 대한 국어 교육 차원에서라도 아나운서 못지않은 우리말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자들에 대해서 우리말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 손영준 위원장

허인순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 허인순 위원(서면 제출)

- '사상자 13명' 시청역 사고 현장...참사 흔적 그대로, 기자의 발음이 부정확해 가해자 나이

를 잘 알아들을 수 없었고, 사고 주변 설명 시 불안한 진행이 아쉬웠습니다.

- [출근길 인터뷰] "일보는 동안 아이 1시간만 맡아줬으면..."

서울시청 여성가족실 특화보육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기존의 어린이집 유효 공간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이용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며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이용료는 1시간당 2000원이며 하루 최대 4시간, 월 6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고요. 서울 전역 확대 예정, 특히 일하는 엄마들, 마땅히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던 엄마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관 주도의 이런 실질적인 보육 서비스 시스템이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 당시에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기자가 현장연결을 하다 보니 좀 당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쫓기는 느낌에 방송을 해서 발음을 또렷하게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방송기자는 전달력이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방송에 투입하기 전에 신입 기자들은 조금 더 교육을 시켜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더 관심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 ▲ 서신석 위원

- 연합뉴스TV의 뉴스리뷰 2024년7월9일 지역뉴스 보도, "청춘남녀 모여라"...성남시의 신박한 저출산 극복 대책, 대한민국의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그에 대한 대책과 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다. 2024년 7월 9일 지역뉴스에서 성남시에서 진행한 솔로몬의 선택 "청춘남녀 모여라"...성남시의 신박한 저출산 극복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뉴스 보도를 하였다. 본 보도 내용에서 남녀 앵커는 저출생이라는 멘트로 보도하였고 보도 제목에서는 "성남시의 신박한 저출산 극복 대책"이라고 자막이 나왔다. 또한 현장취재 서승택 기자는 "성남시의 솔로몬 선택은 저출산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저출산이라는 멘트 사용을 하였으며, 맏음 멘트에서는 "솔로몬의 선택을 6차례 더 개최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라는 멘트로 뉴스 보도를 마무리하였다. 이 보도 내용을 보면서 앵커나 취재기자나 제목을 선정하는 작가나 저출산과 저출생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진행하는 것 같았다. 연합뉴스TV에서는 저출생 기획 보도 진행을 7월 1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보도 내용에서도 보면 저출산과 저출생에 대한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올 초부터는 정부나 국회, 지방단체, 주요 언론기관 등에서도 공식적으로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출산을 저하의 원인을 아이를 낳는 주체인 여성에게 둔다는 인식이 강하여 사회 구조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여러 지자체 및 공영방송에서 비교적 가치중립적 단어인 저출생을 일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저출산은 출산율(fertility rate)을 지표로 사용: 출산율은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저출생은 출생률(birth rate)을 지표로 사용 : 연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공영방송인 연합뉴스TV가 사회적 추세인 저출생 용어와 기존 사용했던 저출산 용어의 뜻을 잘 구분하여 사용했으면 한다. 또한 앵커나 기자들이 뉴스 보도를 할 때 본 용어의 뜻을 명확히 인지하고 보도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저출산하고 저출생의 어떤 차이점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흔히들 저출산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오늘 보니까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임명을 처음으로 했는데 이제 인식이 좀 바로잡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전달해서 저출생으로 쓰도록 공지하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강건기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강건기 위원(서면 제출)

- 7월 9일 라이브 투데이에서 제2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는 짧지만 제2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의 주제를 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참석하는 해외 석학들과 국.내외 과학기술인 2000여명이 참석한다는 소식과 주요 행사 내용도 잘 소개하였습니다. 다만, 과총이 무슨 연합회인지 잘 모르는 시청자를 위해 기관 소개도 함께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7월 10일 뉴스 투나잇에서는 제2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 개막식과 기조 강연, 미래세대와의 대화, 정부의 국제협력 방향 등의 주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기조강연에서 윌리메이 미국과학진흥회 회장의 강연 주요 내용 일부와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서은숙 메릴랜드 물리학과 교수의 토크식 강연 주요 내용 일부도 함께 상영하는 보도가 좋았습니다. 특히, 기후, 환경 문제, AI 등 미래를 준비하는 주제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행사를 주관한 과총 이태식 회장을 초대하여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의 의의와 기대효과에 대해 인터뷰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관련 이슈, 행사는 물론, 개최 기관에 대한 소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단체 같은 경우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한 줄이라도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을 해주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친절한 보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한수 위원

초저출산 시대 위기 해법은..."사회 개혁 함께해야", 해당 기사에서 기자는 '정부가 최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대책 전환을 예고했다'면서 지난 6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이 절반 정도의 출산율 감소를 기록하는 동안 한국은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내용을 그래프 및 표와 함께 전하며 보도를 시작합니다. 초저출산 또는 초저출생 문제는 수십 년간에 걸쳐 변화된 사회 구조 및 결혼, 육아, 가족에 대한 가치관 등 복합적인 원인의 결과이고, 따라서 정부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기자 역시 이러한 점을 간단하게나마 언급하면서 "이런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사회 개혁을 통해 위기 속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교육

분야의 경우 학생 수가 적어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예시를 덧붙입니다. 초저출산과 초저출생에 대한 보도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사의 경우 기자의 새로운 시선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관련 조직이나 기관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하려는 기자의 노력도 엿보였습니다. 다만 두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이 다소 모호하게 느껴져 아쉬웠습니다. 한 전문가는, "핀란드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사례들을 받아서, 줄 세우기 식의 입시 위주의 교육 말고 학생들의 창의성이라든지 공동체성이라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나 어떤 탄력성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라는 조언을 전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향후 저 출생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현재 입시 위주에 머물러 있는 교육 현실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다양한 교육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정도로 해석되는데, 긴 문장을 한 번에 전하다 보니 전달력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다른 전문가의 경우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어떠한 전환을 담보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은 고통스러운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원칙과 방식을 찾아나간다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걸 놓친다면 오히려 더 큰 고통과 갈등 속으로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전하는데, 인터뷰로 인해 기사의 내용이 오히려 더욱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전환을 담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고통스러운 이해관계 조정'이라 함은 어떤 사회적인 주체들 사이에 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원칙과 방식을 정립하는 시기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사회적 논의가 어디까지 이뤄지고 있고, 어떻게 조율해나갈 수 있는지, 또한 저 출생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통과 갈등'은 어떤 것을 예상하는지, 구체적인 정보의 제시나 의견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기자가 말미에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였다면 더욱 생산적인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전반적으로 리포트가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가급적이면 애매하고 추상적인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고 구체적인 부분을 넣는 게 시청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텐데요. 아마 해당 주제에 대해서 기자가 좀 심도 있는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 대상자가 좀 애매모호한 말을 한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잘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추상적인 얘기만 계속 하셨으면 질문을 좀 달리해서 사례를 짚어달라는 등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원하는 멘트를 받아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기자가 성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하고 좀 더 성의 있게 리포트를 만들도록 전달하겠습니다.

#### ▲ 손영준 위원장

박화선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 박화선 위원(서면 제출)

- [연합뉴스TV 현장잇슈] : 면허시험장 즐기는 고령 운전자들...시청역 사고'급발진' 가능성

물으니 - 7월 09일, 며칠 전 시청역 앞에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였지만, 전반적인 뉴스의 분위기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의심하는 식의 제목으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를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런 인구 구성의 변화로 인한 것이다.' 라는 주장과 고령화 인구의 운전 능력 감소 및 최근 출시되는 차량의 각종 전자 장비 사용의 부적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운전을 제한해야 된다는 여론도 비등한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여론 형성에 소외되었던 고령 운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인터뷰는 시의적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과 달리 고령 운전자들은 주변의 우려의 시선 등으로 운전은 소심하고 안전하게 한다고 주장을 하며, 사고의 원인은 나이 탓이 아닌 운전자 개인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제한은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제도라는 측면과 교통약자인 고령층의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며 여전히 존재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들의 상황도 고려해야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니 만큼 후속취재 및 보도를 통해 이성적, 합리적으로 대중의 중지를 모아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후속 취재 기대합니다.

- [다다를 인터뷰]"급발진, 억울한 피해 없어야죠" 어른들 뼈 때린 고교 발명왕 - 7월 16일  
최근 가해자가 급발진으로 주장한 충격적인 교통사고 및 차량 내 각종 전자장치의 증가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자동차 제조회사는 정확한 원인 및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야겠다는 선의로 시작한 '급발진 확인 장치' 발명품은 23년도 대통령상까지 받으며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았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한 대단한 발명품을 통해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 언론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작년도에 완성된 발명품인데 이것이 실제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급발진을 검증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후속보도도 기대합니다.

- 김정은, 삼지연시 현장 시찰...간부 고강도 질책, 2024.7.14. 오후 6:55, 동 기사는 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시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 감독을 질책하고 처벌을 지시했다는 기사인데요, 감독을 어떻게 질책하고 처벌하라고 했는지는 나오는데 질책한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 다른 기사를 찾아보고 나서야 '새로 지은 국내 관광객용 여관을 발전하는 시대적 요구와는 근본적으로 대치되게 낡고 뒤떨어진 기준으로 허술하게 시공', '신설 건물을 비정상적으로 개건·보수할 필요가 생겨 경제적 손실이 초래' 등의 사유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뉴스가 반쪽짜리 뉴스였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사회 고령화로 계속 문제가 아마 될 겁니다. 그렇다고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운전을 제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나 아무튼 위험한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묘수를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전문가들 취재를 통해서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근 급발진을 주장하는 교통사고를 많이 기사화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급발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 북한 동향을 소개하는 보도인데요. 아마도 단순하게 동향을 설명하는 그런 보도이다 보니까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시청자들이 조금 궁금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줄 정도는 저희가 더 넣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안성희 위원

- 2025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130원 결정과 관련하여 '잇슈큐즈미'라는 코너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표하는 것에 대해 아르바이트, 자영업 식당 사장님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인터뷰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어 의미가 있었습니다. (경제) '나홀로 사장들' 문 닫는데...최저임금 1만 원 시대 (7/15) 이미 지난해에만 사업자 100만 명이 문을 닫았는데, 내수 부진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 사회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접어든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최저임금을 연결 짓는 방식의 보도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좀 더 신중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연합뉴스TV에서 심도 있는 내용을 기획해 보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 [날씨속 과학속] 임계치 다다른 토양...한반도 '산사태 주의보', 장마철을 맞아 폭우로 인한 침수 등 피해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13일 '날씨속 과학속'에서 지금까지 집중 호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산사태'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다루고 있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장면을 보여주면서 산사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와 그 위험의 정도를 실험 장면과 함께 보여주고 있어 이해가 쉬웠고, 특히 자신이 사는 곳의 산사태 위험등급을 산림청 '산사태 예보 발령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장마철 피해 예방에 시의적절하게 도움되는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최저임금 문제는 양측의 의견이 많이 갈리는 이슈입니다. 저희가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이러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성장과 분배의 철학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지적해 주신 '나홀로 사장들 문 닫는데...최저임금 1만 원 시대'라는 스토리 전개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나홀로 사장하고 최저임금하고 이렇게 직접 연관은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 어려움과 최저임금 연결을 짓는 것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하나의 빌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자영업자들이 아주 소수의 피고용자들을 고용하면서 일을 하기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이슈가 될 때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언급했던 것이구요. 이거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그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 양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 최근 장마, 폭염 등 현 시점에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 이상헌 위원

- 지난 7월 11일, 'OECD "한국 경제 부진에서 벗어나"... 저출산 심각 경고' 보도 관련입니다. OECD가 발표한 경제보고서 내용을 다뤘는데요. 자막과 기자의 리포팅에만 의존하다 보니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와 관련해서 세수, 고령화, 연금개혁, 외국인 투자 개방, 저출산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해서 보여줬다면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경제 관련 뉴스는 좀더 정보전달에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 뉴스보도에 쓰이는 인포그래픽 활용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포그래픽이 복잡한 정보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인데, 방송이 나가고 나면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재사용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보도에 활용된 다양한 인포그래픽을 모아서 아카이브를 만들고, 홈페이지나 앱에서 제공하면 재사용도 가능하고, 시청자나 관계자들에게 더 나은 정보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뉴스 보도와 시청자 간 소통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 OECD 경제 보고서 같은 것은 사실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하면 방송 리포트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런저런 팩트의 나열이고 또 전문적이어서 리포트로 만들었다고 해서 시청자들이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관심을 주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짧게 단신 처리하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리포트를 한다고 하면,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이해하기 쉬운 특정 부분을 잡아서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쪽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제안하신 것처럼 인포그래픽들을 모아서 아카이브 만들고 이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제공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카드 뉴스 같은 거 유행하잖아요. 사실 카드뉴스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주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귀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 이성우 위원

출산 장려금에 공채 몰려...기업도 '일·가정 양립' 추세(7.1.),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 빠져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으며, 기업 또한 저마다 방법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스잇'에서 보도된 이날 뉴스는 약 2분에 걸쳐 부영그룹이 올해 초 자녀당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자 최근 공개 채용에 전보다 5배가 늘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해 출산 장려금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는 쌍방울그룹과 호반그룹, 사옥에 370평 크기의 대규모 어린이집을 만들고 외국인 원어민 강사 등을 배치하고,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내 대부 원리금 상환 유예, 아빠 직원도 월 1회 태아 검진 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라는 KT의 사례를 짚막하게 소개했습니다. 뉴스의 내용에 좋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짧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요즘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단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방향으로 기업 문화 변화를 고민하고 모색하는 곳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영성을 지향하는

보도전문 채널에서 기업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자칫 몇몇 특정 기업을 위한 광고 홍보성 기사 보도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단 우려도 듭니다. 하지만 지금 심각한 저출생·고령사회의 문제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널리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침 7월 9일에는 '아이 낳으면 1억' 인천시, 이번엔 '임대료 1천 원' 주택?, "청춘남녀 모여라"...성남시의 신박한 저출산 극복 대책과 같은 지자체 사례도 소개를 했는데, 이 내용 역시 좋았다고 칭찬합니다. 연합뉴스TV가 노파심을 조금 뒤로한 채 기업과 공공 분야를 가리지 말고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만한 좋은 사례는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산업 부문 경제뉴스의 경우에는 홍보성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면 기사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성 문제하고 또 이런 오해받을 여지, 이 부분을 잘 비교형량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기사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을 기사화하면서 저희가 완벽하게 오해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논리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이 문제 제기했을 때 저희 나름으로 명분을 설명할 수 없다면 홍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 ▲ 손영준 위원장

혹시 부족하거나 빠뜨린 게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회의 준비해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7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